

지역방송국 기록관리 현황과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thods for Records Management in Local Broadcasting Stations

김은총 (Eunchong Kim)**

김수정 (Soojung Kim)***

초 록

본 연구는 지역방송국들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분석의 기준점이 되어 줄 KBS서울총국을 비롯하여 KBS 지역방송국 1곳, MBC 지역방송국 1곳, 지역민방 2곳을 방문하여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지역방송국은 디지털로 생산되어 송출된 방송영상물은 방송국 내 서버를 통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에 생산된 아날로그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보유 기록물의 수량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보존설비나 검색장비가 낙후되어 기록물에 대한 기본적인 보존과 이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국 자체 기록관리 규정 마련, 목록 작성을 통한 보유 기록물 수량 파악, 아날로그 기록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 실시, PD들에 대한 메타데이터 교육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records management in local broadcasting stations. To that end, it conducted interviews with personnels in charge of keeping records in KBS in J province, MBC in J province, and 2 local commercial broadcasting stations as well as KBS headquarter. The findings show that the local broadcasting stations keep digital files of born-digital broadcast records in a server in a relatively systematic way. However, they never digitalized their analog records and do not even know the exact volume of total records they own. In addition, they have significant difficulties in preserving and utilizing broadcast records because of outdated preservation facilities and information retrieval system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current broadcast record management such as preparation of record management guidelines, construction of an inventory for owned records, digitalization initiative, and provision of metadata education for PDs, etc.

키워드: 방송기록물, 방송영상기록, 기록관리, 지상파방송국, 지역방송국, 지역민방 broadcast records, TV program records, records management, terrestrial broadcasting station, local broadcasting station, local commercial broadcasting station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8913575).

이 논문은 2017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eun_chong@naver.com) (제1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imsoojung@jbn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7년 11월 25일 ■ 최초심사일자: 2017년 12월 16일 ■ 게재확정일자: 2017년 12월 27일
■ 정보관리학회지, 34(4), 293-320, 2017. [http://dx.doi.org/10.3743/KOSIM.2017.34.4.293]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미디어 변혁기를 맞아 다양한 유형의 뉴미디어가 탄생하면서 우리의 소통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주류 미디어인 방송을 완벽히 대체하는 듯 했지만 SNS를 통한 방송의 2차 파급과 소비패턴의 다양화에 따라 방송 콘텐츠활용방식이 전환되어, 방송은 위기와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의 미디어가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대체되거나 축소되었던 과거의 매체사적 전개와는 달리 방송이 텔레비전이라는 단일매체적인 한계에서 벗어나 다매체·다채널 환경을 통해 방송콘텐츠를 파급함으로써 방송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방송사가 제작하여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해온 방송영상물은 현대의 문화, 예술, 사회, 세태 등을 반영한 국민 모두의 중요한 문화·역사적 자산으로서 시대를 초월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계승되어야 할 것들이다(박수현, 2004). 게다가 방송영상물은 교육적 자료로써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방송콘텐츠의 다매체 활용성을 바탕으로 국내 방송 및 멀티미디어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한류 글로벌 문화 산업의 주요콘텐츠로 활용이 기대된다. 따라서 국가의 위상과 방송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산관리의 측면에서도 방송기록물의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방송기록물의 가치를 일찌감치 인식한 세계 여러 국가들은 1970년대 말부터 방송영상기록

물의 보존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법제를 정비하고 공공목적의 방송 아카이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유은혜, 2006).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적 차원에서 방송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방송영상자료를 비롯한 각종 방송기록물은 각 방송국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보존되고 있다. 통합형 아카이브가 아닌 방송국별 기록관리 체제는 방송국 내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인력 및 자원 확보 등 방송국의 형편에 따라 기록관리 수준의 격차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방송국의 경우, 지역을 대표하는 미디어로서 충분한 지역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지역방송기록물을 통해 지역콘텐츠 개발 및 활용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중앙집권적인 국가 운영 형태에 따라 장기간 방송 정책과 사회적 관심에서 배제되고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김재영, 이승선, 2016). 방송 기록관리의 지평이 확대되는 시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국이 생산하는 방송기록물에 대한 지원과 제도 정비는 고사하고 근본적인 관심과 인식조차 부재한 실정이다. 그 결과 중요한 방송기록물이 열악한 환경과 부실한 관리 하에 분실 혹은 멸실되기 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방송국들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방송기록물 관리의 기준점이 되어줄 KBS서울총국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그와 대비하여 KBS 지역방송국 1곳, MBC 지역방송국 1곳, 지역민영방송국(이하 지역민방) 2곳의 현황을 분석한다. KBS서울총국은 국내 대표 공영방송국으로 가장 많은 방송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가장 먼저 추진한 방송국이다(오광호, 2007).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원이 풍부한 KBS서울총국과 비교하여 환경이 열악한 지역방송국의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상기한 연구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방송국은 다양한 체제의 방송국을 포함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KBS서울총국을 비롯하여 KBS의 직할국인 J지역 KBS총국(이하 J-KBS), MBC의 계열사인 J지역 MBC 방송국(이하 J-MBC), 지역민영 방송국인 P방송국(이하 P민방)과 J방송국(이하 J민방) 등 총 5곳의 방송국을 선정하였다. 사전조사를 위해 각 방송국의 홈페이지 및 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방송국의 역사 및 기록관리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선정된 방송국을 방문하여 현장 관찰 및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전화 통화를 통해 최대한 기록관리 업무와 유사한 담당자 및 관련자를 추천받아 선정하였다. 기간은 2015년 4월 KBS서울

총국의 기록관리업무 담당자와의 면담을 수행하였고, 나머지 방송국들은 같은 해 8월과 11월 사이에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내용의 보충을 위하여 2017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다시 5곳의 방송국을 방문 혹은 서면으로 2차 면담을 실시하였다. 1차 면담은 평균 1시간 20분, 2차 면담은 평균 50분이 소요되었다. 각 방송국 면담 대상자의 소속과 담당업무 등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면담의 내용은 1) 기록관리 부서 및 전담 인력, 2) 기록물 보유현황, 3) 공간 및 시설, 4) 기록관리 과정, 5) 열람 및 이용의 영역, 6) 개선방안 등 6개 영역에서 <표 2>와 같이 질문하였다.

1.3 선행연구

국내에서는 방송기록물의 사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은 편이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방송영상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주로 신문방송학 분야에서 방송영상기록물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태양식(2009)은 취재 원본자료인 영상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상파 방송 3사를 중심으로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디지털 아

<표 1> 면담자 특성

방송국명	면담자수	소속 및 직책
KBS서울총국	1	아카이브사업부 직원
J-KBS	3	자료실 담당자(FD 겸임), 편성제작국 PD, 보도국 기자
J-MBC	2	자료실 담당자(편성제작부장/아나운서 겸임), 편성국 PD
P민방	1	자료실 담당자(아나운서 겸임)
J민방	1	자료실 담당자(PD 겸임)

〈표 2〉 면담 내용

면담 영역	영역별 내용
기록관리 부서 및 전담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인력 유무 • 주요 업무와 겸직여부, 근무 기간
기록물 보유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 기록물의 범위 • 기록물의 종류와 양
공간 및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실, 보존서고 위치 • 공간 면적 • 보존 및 열람 시설의 종류
기록관리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날로그 기록물 보존방법 •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존재 여부와 기능 • 보존기간·폐기를 위한 기준 및 심의절차 • 기록관리 절차 • 디지털화 정도
열람 및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이용자의 열람 및 이용 • 외부이용자의 열람 및 이용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적 개선방안 • 제도적 개선방안 • 국가, 시·도·자치단체 통합형 아카이브 참여 의사

카이브 구축에 따른 효율적인 영상기록물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는 특히 디지털 아카이브의 효율적 검색을 위한 메타데이터의 표준화와 아카이브 매니저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우계성(2010)은 국내의 방송영상 아카이브 구축사례를 소개하고 SBS 아카이브 센터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료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디지털 방송기록관리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한편,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가 주도의 공공 방송 아카이브의 설립을 주장한 연구들이 있다. 일찍이 강영숙(2000), 장유미(2001)는 국가 주도의 공공 방송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유은혜(2006)는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국 15곳의 담당자 설문조사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방송영상아카이브 구축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구사항 및 참여의사 등을 도출

하였다. 김미경(2009)은 방송영화 기록물의 총괄 관리 기능을 수행할 ‘국립 방송영화 아카이브’의 신설을 주장했다. 안정적인 방송영화 기록물의 수집을 위해 법·제도적 개정을 통해 의무납본제를 실시해야 하며, 관리를 위한 제작자 및 방송사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공동 활용을 위한 민간기관과의 협약, 국제필름아카이브 연맹 가입 등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립 방송영화 아카이브 신설의 초석을 다질 것을 제안했다. 김선희(2008)는 국내의 공공 방송영상 아카이브의 법적 근거 및 국내 방송법, 공공기록물관리법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 공공 방송 아카이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기록관리학적인 차원에서 방송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황새암(2008)은 기존의 연구

들이 주로 방송영상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방송 영상물뿐만 아니라 방송 제작과정 전반의 맥락을 포함한 각종 기록물을 방송기록물로 인식하고 이들의 수집, 보존, 활용을 지원하는 방송 아카이브의 방향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지상파 3사의 자료실 방문 및 담당자들과 면담을 실시하여 현 방송 아카이브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본 연구와 방향성은 매우 유사하나 규모가 큰 지상파 3사 방송국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오광호(2007)는 KBS와 MBC의 지역방송국 25곳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방송기록물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방송기록물 관리 체제 및 운영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방송국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연구로서 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서울총국이 존재하는 지역방송국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으며, 무엇보다 연구 결과가 발표된 지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필요하다.

2. 이론적 배경

2.1 방송기록물의 개념 및 가치

많은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방송으로 송출된 'TV 프로그램' 혹은 '방송영상자료'로 방

송기록물을 한정하였다. 그러나 방송제작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는 영상자료의 경우 촬영원본, 클린본(Clean Program: 이하 CP본),¹⁾ 송출본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그 외에도 각종 문서, 사진, 필름, 녹음테이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생산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자료가 기록으로 남겨져야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방송기록물의 확장된 개념이 필요하다(김선희, 2008). 그리하여 황새암(2008)은 방송기록물을 "방송 영상물의 생산과 이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상세한 맥락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방송기록물의 범위와 유형은 매우 광범위하여 "방송사에서 생산 및 접수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이 포함된다(오광호, 2007). 본 연구에서도 황새암(2008)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방송기록물을 방송영상물 뿐만 아니라 제작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로 정의한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단계별로 생산되는 방송 기록물의 유형은 <표 3>과 같다. 김선희(2008)는 이렇게 다양하게 방송사가 생산·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 중에서도 공공성을 가지면서 특히 법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영구히 보존할만한 가치를 인정받아 선별된 자료만을 방송기록물로 정의하였다.

방송기록물은 시대를 반영하는 기록으로써 역사적·사회적·산업적 가치가 지대하다. 첫째, 방송기록물은 현대사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고

1) 방송현장에서 '클린본'은 영상에서 자막을 없앤 비자막 방송본을 뜻한다. C.P(Chief Producer)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클린본은 제작 책임PD가 제작한 송출 전 최종파일로, 방송국 로고, 출연자 인적사항, 모자이크, 광고 등이 삽입되지 않은 파일이다.

〈표 3〉 방송 프로그램 제작 단계별 생산되는 방송기록물

제작단계		생산되는 방송기록물
제안	프로듀서가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기 위해 방송사를 설득하는 과정. 프로그램의 제목과 장르, 편성 시간 등이 결정되며, 예산과 저작권에 대한 결정이 이뤄짐	제안서, 회의록, 초기 대본, 예산서, 저작권 관련 기록, 스폰서 및 광고 관련 기록
기획	구체적인 프로그램 전략을 개발하고, 관련 자료와 스텝, 작가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대본을 작성	회의록, 대본, 콘티, 메모, 프로그램 관련 자료들
제작	기획 단계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단계로 본격적인 촬영이 행해짐.	대본, 큐시트, 작업 일지, 메모, 소재자료
후반 작업	제작 단계 이후 편집의 완성을 추구하는 단계로써 특수효과장치를 활용하여 영상효과를 추가 제작하기도 하며, 음향과 영상의 편집 작업도 이뤄짐	소재자료, 광고, 음향 자료, 마스터 테이프
송출 이후 작업	방송 이후 시청률 집계와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다양한 매체와 채널에 공급	시청률 관련 통계 기록, 각 매체 별 변환 포맷, 계약자료, 시청자 피드백

* 출처: 황새암(2008, p.10)을 바탕으로 재구성

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로써 사회현상을 대변하며, 문자로만 기술된 문서기록과 달리 문자·영상·음성에 의한 시각적·청각적 수단에 의해 기록물이 생산될 당시의 상황을 생동감있게 전달해 주는 특징을 갖고 있기에 기록정보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둘째, 방송기록물은 정보와 지식제공을 통한 교육 자료적 가치를 가진다. 시사·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연구 자료를 알기 쉽게 가공해 놓은 방송기록물은 교육적인 자료로써 일반 대중과 전문가 집단에게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다.

셋째, 방송기록물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대에 산업적 가치를 지닌다. 2016년 말 기준 국내 방송사 프로그램 수출액은 전년도 대비 15%가 증가한 3.5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방송영상자료를 산업적으로 접근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당위성 역시 고취되고 있다.

넷째, 방송제작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연

구자들을 위한 연구 자료로 사용되어 방송·미디어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제작자들은 추후 유사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재사용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2 방송기록물 관리 정책

현재 방송국 기록물에 관한 국내의 인식과 관심이 부족함에 따라 관련 법령과 정책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먼저 공공기록물법에 나타난 방송기록물의 관리 정책은 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의 4항에서 참고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르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가치판단에 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 후 방송기록물 수집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정결과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기록물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행령 84조 2항에 의거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원본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송부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상의 법 조항은 중앙 기록물관리기관이 방송기록물을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

한편, 방송법에서는 각 방송국이 주체가 되어 방송기록물을 보존할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방송법 83조 1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각 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와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할 의무가 있고, 방송 실시 결과를 방송 후 1개월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2항에 따라 방송 후 원본 또는 사본을 6개월간 보존해야 한다. 추가로 제108조(과태료)에 의거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기록물관리의 실무적인 정책수립과 관리주체는 해당 기관과 기록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방송국 내부 기록관 설치의무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방안이다. 그러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서는 기록관에 관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공공기록물법의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기록관을 설치·운영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결국 법에 따르면 방송국은 자체적으로 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없고 단순히 방송내용을 단기간(6개월) 보존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법률적, 정책적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방송기록물을 보다 장기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국이 개별적으로 내부규정과 지침을 수립

하고 이를 수행해나가야 하지만 사정이 열악한 방송국들의 자구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3. 방송국 기록관리 현황

3.1 KBS서울총국

KBS는 1961년 TV 방송을 시작했으며 1973년 한국방송공사로 공영방송 체제를 갖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민의 수신료를 주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KBS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방송법 44조; 한진만, 변상규, 2016). KBS는 지상파 TV방송 4개 채널(HD 1·2TV, UHD 1·2TV), 위성 TV 방송 1개 채널(KBS WORLD), 라디오방송 7개 채널(1·2·3R, 1·2FM, 한민족, KBS WORLD RADIO), 지상파 DMB방송 4개 채널과 my K 등 뉴미디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국은 현재 각 도를 중심으로 한 9개의 방송총국(부산, 대구, 창원,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과 9개의 읍지국(울산, 진주, 안동, 포항, 충주, 강릉, 원주, 목포, 순천) 등 총 18개국의 지역국을 운영 중이다.

3.1.1 전담 인력

KBS서울총국의 '아카이브사업부'는 기록관리 전담부서로 "공사 방송제작과 관련하여 획득·발생한 콘텐츠를 수집, 관리하여 제작과 다양한 부가 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²⁾ 이 부서는 원래

2) KBS 아카이브 http://kbsarchive.com/kbs_archive/

‘아카이브관리부’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올해 말에 과거에 생산된 아날로그테이프들의 디지털화 작업이 완료될 예정에 따라 향후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 기획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최근 ‘아카이브사업부’로 명칭을 바꿨다. 이 부서에는 2017년 11월 기준 총 30명의 정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20명이 영상아카이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요 업무는 영상콘텐츠의 수집, 정리 보존, 매체변환 서비스, 영상콘텐츠 이용·서비스 지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KBS 콘텐츠 표준체계 운영관리 등이다. 나머지 인원 중 8명은 오디오 아카이브 업무를 담당하고 2명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외 다양한 아카이브 업무 가운데 메타데이터 입력 등의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보완하고 있다.

3.1.2 기록물 보유 현황

KBS서울총국은 국내 방송사 중 가장 많은 방

송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다. 소량의 70년대 자료를 제외하고 대부분 80년대 이후의 방송영상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송출된 콘텐츠를 위주로 보관한다. 2016년 12월 기준 KBS 콘텐츠 현황은 <표 4>와 같다. 여기에는 방송 제작과정 중 발생한 각종 기록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3.1.3 공간 및 시설

KBS아카이브사업부는 디지털서비스국 소속의 독자적인 부서로 KBS 여의도 본관 3층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다. 2층의 약 100평의 독립적인 공간이 아카이브 열람실이며 이곳에 디지털 테이프들이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있고 열람을 위한 편리하고 쾌적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장비들을 이용해 테이프 수집, 보존, 대출, 이용, 매체변환 등 디지털화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이밖에 음악기록은 본관 지하 1층에, 그리고 최근에 생산된 영상기록물들은 신관 지하 2층

<표 4> KBS 콘텐츠 현황

종류	세부콘텐츠	2016.12.31	
영상	필름	130,647롤	
	테이프	628,910개	
	디지털파일	494,683시간	
음악/라디오	음악	CD	292,726개
		LP	217,413개
		DAT	18,357개
		음악파일	2,236,824개
	라디오	DAT	41,411개
		파일	616,735개
사진	인화사진, 슬라이드필름	121,104장	
	디지털파일	301,919개	
도서 (2015년 기준)	단행본	84,981권	
	CD롬	1,054개	
	전자책	4,090권	

* 출처: KBS아카이브 콘텐츠 현황(<http://kbsarchive.com/quantity/>)을 재구성

보존서고에서 분산되어 보관되고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난 영상기록들은 수원드라마센터로 일괄적으로 이관된다. 현재 수원드라마센터에는 2013년 이후에 생산된 디지털 및 아날로그 영상물들이 보존되고 있다.

3.1.4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현황

KBS서울총국은 2000년에 뉴스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고 2003년에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는 뉴스제작의 편집, 송출, 저장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한 시스템으로 디지털화된 영상물을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검색, 재사용이 가능하게 한 시스템이다(우계성, 2010). 뒤이어 2005년부터 오디오 아카이브의 디지털화 작업에 착수하여 2010년도에 KBS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CD와 DAT(Digital Audiotape)에 대하여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였다. 아날로그 테이프의 디지털화는 2011년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K-DAS: KBS-Digital Archive System)을 통해 데이터 입력을 시작하여 2014년부터 검색 및 다운로드 시스템 등 인프라 확충 작업과 함께 매달 정기적인 아카이브 이관이 진행되어 왔다. K-DAS는 서울총국과 지역국을 포함한 전사적인 시스템으로 내부 이용자들에게 방송콘텐츠 검색, 열람, 추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아카이브 시스템이다. 2014년 K-DAS 5단계, 2016년 아카이브 큐레이션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2017년 말에 아날로그 영상테이프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과거 테이프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방송이 송출될 때마다 디지털파일 그대로 인코딩하여 저장할 계획이다.

3.1.5 기록관리 과정

KBS에는 과거에 물리적 매체가 주를 이루고 있을 당시에 「콘텐츠관리 규정」에 따라 방송콘텐츠의 수집, 보존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디지털시대의 도래와 함께 기존 콘텐츠관리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작년에 「2016 디지털미디어아카이브 지침」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스토리지 관리 등의 내용들이 대폭 보장되었다고 한다.

KBS의 기록관리 수집 대상은 지상파채널로 송출되는 프로그램으로 모든 방송영상물은 영구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재방송, 구입한 방송권 기록물(영화나 만화 등 KBS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많은 방송영상물 등), 외신 소재자료 등의 기록물에 보존기간을 설정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보존기간이 설정된 기록물이 보존기한을 넘겼거나 계약된 일정 회차를 방송한 경우와 기타 필요에 의해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비디오콘텐츠실무회의체'나 '콘텐츠평가위원회'를 일시적으로 결성하고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예를 들어, 2016년에는 외신보도 자료들의 폐기를 위하여 보도국 팀장들로 이루어진 회의체를 구성하여 2차례의 회의 후 폐기를 결정한 적이 있다고 한다. 또한 올해 초에는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의 후 KBS 자료실이 생긴 이후부터 2013년까지 송출된 아날로그 방송기록물들을 이관하였다. 향후에는 신규로 발생하는 방송영상물을 2년 단위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하기로 협약을 맺은 상태이다.

KBS의 방송기록물은 현재 KBS 내부의 방송국 전자결재시스템인 KOBIS와 각 부서마다 부

여된 서버 그리고 <그림 1>에 보이는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K-DAS에 저장된다. KOBIS는 전체 사원이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으로 심의정보시스템, 편성정보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등이 통합되어 있는 사내 메인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은 'KOBIS 문서'로 통칭된다. PD는 큐시트, 대본, CP본³⁾ 등 관련 자료들을 심의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심의를 받는다. 이 때 PD들이 메타데이터를 입력하고 아카이브사업부에서는 후에 이를 검수하고 보완하게 된다. 심의를 받아 최종 송출된 모든 방송영상물은 아카이브 사업부에서 K-DAS로 인제스트(ingest)⁴⁾하여 전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K-DAS는 방송영상물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KBS 전사 표준을 적용한 메타데이터 정보와 함께 체계적으로 축적, 보관하는 전사적인 기록관리시스템이다.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내부 이용자들은 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K-DAS에 접근하여 방송콘텐츠를 메타정보, 파일정보, 내용정보 등으로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다.

촬영원본의 경우에는 카메라감독이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여 개별적으로 보관·삭제하는 게 보통이지만 뉴스·보도 촬영원본은 일정량이 축적되면 프로그램 단위별로 FD가 자료실로 이관하여 보관한다. KBS서울총국 내에는 부서별로 다양한 내부서버들이 존재하는데, 방송국 업무의 핵심부서인 보도국의 경우 뉴스(News)의 중요성에 따라 독자적인 서버인 MAM(Media Asset Management, 뉴스 리포트 소스 저장

시스템)을 통해서 뉴스취재파일들을 따로 관리하고 이용한다.



<그림 1> KBS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K-DAS)

3.1.6 열람 및 이용

방송기록물에 대한 접근은 방송국 내에서 K-DAS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내부 이용자들이 한하여 아카이브 열람실에서 열람용 컴퓨터를 통해 파일 다운로드 및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80%가 디지털파일 형태의 대출이며 아날로그 자료의 대출은 20%에 불과하다. K-DAS는 영상의 특정 부분을 추출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용자는 K-DAS로부터 필요한 영상을 추출하고 다운로드하여 개인 컴퓨터에서 편집할 수 있다. 또한 지역국이 제작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영상을 편집, 복사하여 발송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3) 방송 심의본을 의미한다. 촬영원본을 편집한 것으로 여기에 광고, 모자이크 등의 작업이 추가되면 실제 방송으로 송출되는 송출본이 된다. 클린본과 같은 개념이다.
4) 영상 입수를 의미한다. 자동화변환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 및 검수 후 디지털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이다.

외부 이용의 경우 방송기록물을 다루는 K-DAS와 오프라인 자료실에 대한 접근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다만, KBS 공식홈페이지 내에서 가입자들에게 송출된 방송영상콘텐츠의 다시보기 가능하고, 저작권부서를 통해 방송 영상 프로그램의 구매와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KBS아카이브' 홈페이지⁵⁾를 마련해 일반인들에게 KBS의 아카이브를 소개하고 있다.

3.1.7 지역국 기록물 디지털화 작업

KBS서울총국에서는 지역국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현황 조사 및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지역국들을 방문하여 기록물 운영현황과 물리적 매체의 보유 현황 등을 조사했고, 같은 해에 지역국 관리 인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워크숍을 한 차례 진행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부산총국과 제주총국으로부터 본사에서 보관할 만한 기록물을 선별하여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하고 원본을 다시 반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뒤이어 2017년 11월에는 광주총국을 대상으로 동일한 작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국의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역국과의 상호협 의와 재원확보가 필요하기에 일정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2 J-KBS

J-KBS는 1938년 이리방송국 개국과 1959년 전주방송국 명칭 변경 등의 시기를 거쳐 1986년

에 J방송총국으로 승격되었다. 2012년 이후 디지털 TV방송으로 전환한 후 전북권역의 광역 방송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3.2.1 전담 인력

KBS의 지역국은 서울총국과 달리 독립적인 기록관리 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편성제작국 소속의 자료실만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J-KBS의 경우에 1차 면담 시 한 직원이 겸직의 형태로 자료실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해당 업무자의 공식 직책은 FD⁶⁾이나 데이터 관리자 로도 불리고 있었다. 주요 업무는 송출된 자료들을 재가공하여 SNS를 통해 서비스하는 홍보 역할이고 자료실의 자료 분류 및 정리 업무는 전체 업무의 20~30%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차 면담 시 이 담당자는 이직한 이후여서 J-KBS에는 현재는 자료실 담당자가 부재하다.

3.2.2 기록물의 보유 현황

이 방송국에서 생산된 아날로그 기록물은 2011년에 현재의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서 다량 폐기되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날로그 기록물을 자료실 담당자가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으나 모두 시스템에 등록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기록물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유 방송기록물의 종류로는 Analog-BETA, DIGIBETA, HD테이프 등의 영상테이프와 라디오 송출본 및 과거 음원테이프, 각 테이프별로 첨부되어 있는 큐시트, 필름자료 및 서적, 그리고 과거영사필름 등이 있다.

5) KBS 아카이브 홈페이지. Retrieved from <http://kbsarchive.com>

6) FD(Floor Director): 연출보조원을 뜻하는 약어로 방송국내의 스튜디오 관리 및 프로그램의 진행을 도맡는 업무자로 프로그램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들을 담당한다.

3.2.3 공간 및 시설

본관 3층에 위치한 자료실은 일반출입이 통제된 회의실 안에 존재한다. 자료실 문은 잠금 기능을 통해 이중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공간의 크기는 대략 40평 남짓의 크기이며 향온향습 설비와 소화설비가 갖춰져 있고 비교적 청결하고 쾌적한 공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신사옥으로 이전하기 전의 아날로그 기록물은 대부분 공식적인 등록절차 없이 소품실과 복도에 방치되고 있는데 복도 공간은 향온향습설비나 소화 및 보안설비가 통제되지 않는 공간이며 자료실과 달리 출입 제한이나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품실 내부 공간에도 테이프와 큐시트, 대본 등 여러 방송기록물이 방송소품들과 섞인 채로 보관되고 있었다. 소품실의 방송기록물은 주로 CP본과 송출본으로 각 PD들의 이름이 적힌 책장 안에 분류나 정리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별도의 관리주체 없이 방치되고 있다.

3.2.4 기록관리 과정

신사옥으로 이전 시, 각 PD들이 기록을 선별하여 폐기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폐기를 실시한 적이 없다. 폐기하지 않고 남은 아날로그 기록물에 대한 정리 작업 시에는 공식적인 지침이 없어서 자료실 담당자가 상사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의 번호를 매기는 작업을 했다. 이 때 테이프마다 큐시트가 함께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바탕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입력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상을 재생해보면서 대략적으로 입력하였다. 그러나 담당자는 메타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KBS는 KBS의 직할국으로 KOBIS와 K-DAS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지역에서 제작해서 전국방송으로 나가게 될 방송영상물은 KBS서울총국의 웹하드 폴더에 업로드하여 송출할 수 있도록 하고 송출 후 K-DAS에서 보존된다. 지역권역에만 송출된 방송영상물의 경우, PD별로 개인 컴퓨터에 CP본을 보관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 저장공간이기 때문에 PD들 각자의 기준으로 보관·삭제하며 방송국 전체에 적용되는 기록관리 지침은 존재하지 않지만 주로 특집방송 위주로 저장하고 있다고 한다. 방송 완료 후의 송출본은 지역국영상관리시스템 내에 PD별로 배당된 공유폴더에 한시적으로 저장되고 있다. 이 송출본에 대한 메타데이터 입력은 각 프로그램별로 소속된 FD가 맡고 있다. 지역국영상관리시스템 내에 저장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송출본 파일들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자료실의 16TB 용량의 대형외장하드로 이관하거나 DIGIBETA 혹은 HD 테이프로 변환하여 자료실 담당자에게 입수되고 등록된다. 그런데 저장매체인 테이프의 구입비용이 높다 보니 PD들은 테이프를 절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 개의 테이프에 복수의 프로그램과 여러 회차를 저장하는 상황으로 일정량이 모아지면 이관하게 됨에 따라 회차마다 송출된 영상물의 자료실 등록이 지체되고 있다.

아날로그 영상기록물에 대한 디지털변환작업은 일시적인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개별 기록물을 디지털화해 사용한 경우는 있으나 전사적인 차원의 체계적인 디지털화 작업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당시 자료실 담당자는 지역국의 아날로그 기록물에 대한 디지털화의 실질적인 한계를 전사적으로 인정하고, KBS

서울총국에서 지역총국별로 디지털화 사업을 진행 중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3.2.5 열람 및 이용

전국방송으로 송출된 방송영상물은 K-DAS를 통해 디지털 방송영상물 및 각종 디지털 파일을 공유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검색 및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 지역국에서 제작해 지역 내에서 송출된 방송은 지역 내 서버와 자료실에서 이용한다. J-KBS의 지역국 영상관리시스템 내에서는 각 PD별 폴더에 지역 권역에 송출된 방송영상물들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의 아이디를 소유한 이들은 모두 각 폴더로부터 별도의 통제나 추적 없이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이용하고 있다.

오프라인 열람 및 이용을 위해 소규모의 자료실이 운영되고 있다. 담당자에 따르면 이용을 위해서는 KOBIS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신청해야 하나 별도의 열람 허가 및 통제를 번거롭게 여기는 내부문화로 인해 자료실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자료를 이용한 후 사후 보고하거나 심지어 보고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해 통제가 어렵다고 밝혔다. 본사에서 지역국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국 자료실에 요청하면 행낭서비스로 올려보내거나 디지털파일로 인출해 다운로드하게끔 한다. 외부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방송콘텐츠 다시보기 서비스 외에 방송기록물에 대한 지역국 자료실 이용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3.3 J-MBC

계열사 체제로 운영되는 MBC는 1개의 본사

와 19개의 계열사로 이뤄진다. J-MBC는 해당 계열사 중 하나로 1965년 2월 개국하였고 오늘날 전북지역의 주요언론으로 성장하였다. 계열사는 경영, 인사, 편성권 등의 결정을 본사로부터 지휘를 받아 운영되므로 자율성이 다소 결여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3.3.1 전담 인력

1차 면담 시 편성제작부장이자 아나운서인 자료실 담당자가 명목상으로나마 존재하였으나 2차 면담 시에는 자료실 담당자가 공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3.2 기록물 보유 현황

J-MBC의 기록물의 종류는 CD, LP 등의 음악기록물과 편성제작부의 테이프, 영상제작부의 테이프 등으로 구성된다. U-Matic, Analog-BETA, DIGIBETA, HD테이프 등의 영상테이프, 라디오 송출본 및 과거음원테이프, 각 테이프별로 첨부되어 있는 큐시트, 필름자료 및 서적, 그리고 과거영사필름 등이 주된 기록물이다. 그러나 수량이 있어서는 타 방송국과 마찬가지로 수년째 이뤄지지 못한 전수조사로 인해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담당자에 따르면 10여년 전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자료실의 아날로그 테이프(VHS, SD 등)를 정리한 현황 파일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았고 그 이후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한다. 또한 테이프의 절약을 위해 한 테이프 안에 복수의 프로그램이 혼재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프로그램별로 얼마만큼의 회차별 방송영상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3.3.3 공간 및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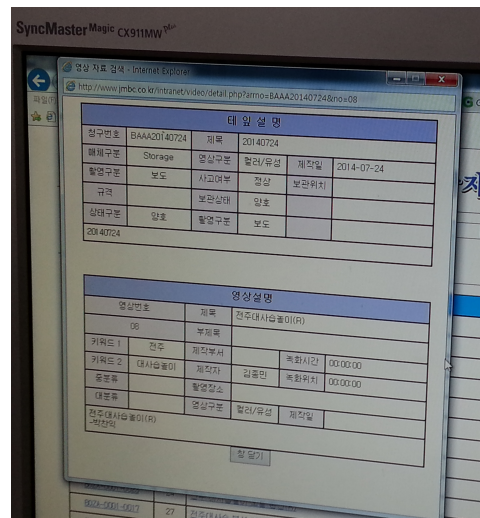
J-MBC 사옥 지하에 대략 70평의 공간을 마련하여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J-MBC의 방송 시설은 비교적 최신 기기들로 전문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관에 있어서는 전문 저장고가 아닌 철제선반을 이용하고 있었고 테이프의 배치에 있어서도 송출날짜와 프로그램별로 분류되지 못하고 두서없이 꽂혀있고, 테이프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테이프재생 및 열람을 위한 컴퓨터와 재생장비의 경우 검색 장비의 노후화 측면에 있어서 10년 이상 사용된 장비들이 대부분이었고, 컴퓨터 운영체제도 바이러스 및 보안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해당 제작업체에서조차 단종시킨 모델로 구동되는 컴퓨터도 존재하는 등 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였다.

3.3.4 기록관리 과정

기록물의 수집, 관리 및 보존에 있어서는 MBC본사가 본사의 기록물만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 계열사 방송국은 자체적으로 기록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MBC본사에는 <자료관리규정> 및 <자료관리세칙> 규정이 존재하지만(오광호, 2007) 계열사인 J-MBC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체 규정이나 보존기간 및 폐기 기준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방송영상기록물인 촬영원본, 클린본, 송출본 관리는 모두 PD가 맡고 있다. 방송국에서는 PD들에게 서버 내 2TB의 저장공간을 지원해주고 특정 프로그램을 추가로 맡게 되면 용량을 증설해주기도 한다. PD 재량에 따라 촬영원본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선별하여 클린본, 송

출본과 함께 할당된 서버 내 저장공간이나 개인 컴퓨터 혹은 외장하드에 저장한다. PD는 디지털테이프로 방송 송출을 완료하고, 해당 송출본을 방송국 영상검색시스템에 등록한다. 이때 PD는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테이프와 영상에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입력하여 차후에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나 검색시스템 입력에 대한 방송국 차원의 관리와 통제가 없어서 체계적인 등록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영상검색시스템은 KBS서울총국의 K-DAS와 같이 방송영상물을 디지털파일로 변환, 보존하는 아카이브 시스템이 아니라 단순히 방송영상물에 대한 메타데이터만을 등록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목록시스템에 가까워서 기록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림 2> 영상자료검색시스템 메타데이터

출본과 함께 할당된 서버 내 저장공간이나 개인 컴퓨터 혹은 외장하드에 저장한다. PD는 디지털테이프로 방송 송출을 완료하고, 해당 송출본을 방송국 영상검색시스템에 등록한다. 이때 PD는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테이프와 영상에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입력하여 차후에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나 검색시스템 입력에 대한 방송국 차원의 관리와 통제가 없어서 체계적인 등록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영상검색시스템은 KBS서울총국의 K-DAS와 같이 방송영상물을 디지털파일로 변환, 보존하는 아카이브 시스템이 아니라 단순히 방송영상물에 대한 메타데이터만을 등록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목록시스템에 가까워서 기록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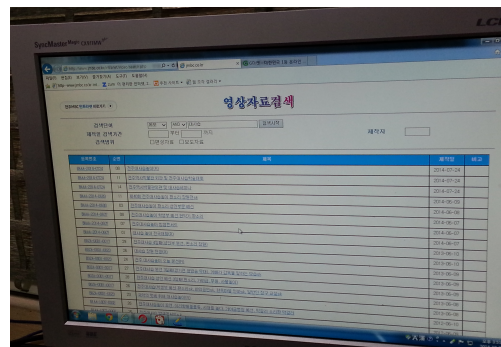
에서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없이 PD가 송출본을 서버, 개인 컴퓨터, 외장하드 등의 장소에 임의적으로 분산하여 보관하고 있어서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PD들이 다큐멘터리나 특집 프로그램 등 중요한 가치를 지니거나 예산이 많이 투입된 방송의 송출본의 경우에는 보존을 위해 디지털테이프 형태로 자료실로 보내기도 하지만 현재 자료실 담당자가 부재한 관계로 제대로 등록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큐시트나 대본등도 KBS와 달리 작가들의 개인 저작물로 방송국의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작가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한다.

보도국에서는 과거 영상을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여 과거에 상당한 양의 보도 자료를 디지털화한 적이 있으나 전체 이날로그 기록물에 대한 총괄적인 디지털화 작업은 수행된 적이 없다. 현재 생산되는 영상기록물은 처음부터 디지털로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과거 이날로그 기록물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면담자는 방송국의 기록관리에 대한 의지가 매우 약하고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지하서고에 자료를 보관하는 정도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응답하였다.

3.3.5 열람과 이용

〈그림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방송국 내의 인트라넷을 통해 영상자료검색시스템에서 방송영상물의 검색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PD들이 서버 내에 영상물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제작한 PD의 허락을 받은 후에 접근하여 다운 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PD들이 영상물을

서버 외에 개인컴퓨터 등 다른 공간에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 서버 내에서 파일명을 부여하는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파일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림 3〉 영상자료검색시스템 검색 결과

내부 이용자들은 자료실에 방문하여 방명록을 작성 후 자유로이 기록물을 열람·이용할 수 있으나 관리자가 부재하여 이용에 대한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방송영상물의 오프라인 접근에 대한 공식적인 추적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외부 이용자의 경우 자료실의 접근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3.4 P민방

SBS와 가맹협약을 맺고 있는 지역민영방송국(이하 지역민방)은 국내 일부 지역에서만 시청가능한 방송으로써 운영 주체가 민간인 방송국을 말한다. 1차 지역민방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P민방은 1994년 9월 부산방송주식회사 설립과 1995년 5월 14일 TV개국을 시작으로 경남지역의 주요 방송사로 자리매김하였다. 현재 부산경남 지역 전반에 걸쳐 방송을 송출하

고 있다.

3.4.1 전담 인력

자료실은 원래 독립기구였다가 2014년부터 편성심의팀 마케팅국 소속으로 편제되었다. 현재 자료실에는 총 3명의 정직원과 1명의 인턴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실장은 아나운서 업무가 본업으로 2014년부터 자료실장의 역할을 겸임하고 있고 다른 2명의 직원은 각각 자료실 업무와 방송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 문헌정보학과 출신의 인턴을 주기적으로 선발하는데 인턴의 근무기간은 3개월이다.

3.4.2 기록물 보유 현황

아날로그 자료의 경우, 1995년 방송국 개국부터 생산된 자료들이 보관되는 중이다. 그 종류에 있어서는 Analog-BETA, DIGIBETA 등의 영상테이프와 라디오 송출본 및 과거음원테이프, 각 테이프별로 첨부되어 있는 큐시트, 필름자료 및 서적, 그리고 과거영사필름 등이 보관되고 있다. 2015년에 디지털화 예산을 대략적으로 책정해보기 위해 테이프 수를 세워본 결과 당시 3만 5천여 개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보유 중인 기록물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수량은 담당자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3.4.3 공간 및 시설

자료실은 본관 4층에 80평 넓이의 공간에 자리잡고 있으며 아날로그 기록들도 약 80평 정도의 지하 5층 서고에서 보관되고 있다. 설비에 있어서는 4층 공간의 경우 도서열람실 운영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나, 지하 5층의 아날로그 기록의 보관 공간은 항온항습 설

비의 용량이 공간 규모에 비해 부족해 보였다. 특히 항습의 경우, 담당 인력들이 제습기의 물을 비우는 업무를 1일 2~3회씩 수행하고 있다. 또한 <그림 4>처럼 각종 문서기록들이 온전히 정리되지 못하고 상자에 담긴 채 방치되어 있는 것도 다량 발견되었고, 오래된 문서는 산화로 인해 변질된 기록물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명 역시 일반 형광등의 사용으로 인해 종이기록물과 필름테이프 등의 보호를 위한 조도 관리가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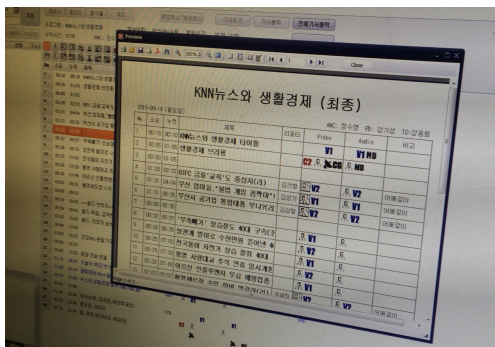
<그림 4> P민방 보존환경(좌) 문서기록물 보관 상태(우)

3.4.4 기록관리 과정

다른 방송국들과 마찬가지로 기록물 관리를 위한 내부 지침이나 규정, 폐기 기준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촬영감독은 본인이 촬영한 촬영원본을, PD는 CP본을 개인 컴퓨터와 회사 내 서버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한다. 방송국 차원에서 이들에게 1-2TB 용량의 외장하드를 지급하여 추가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P민방은 자체 전산팀에서 개발한 콘텐츠종합관리시스템(Contents Management System:

CMS)을 사용하고 있다(〈그림 5〉 참조). 이 시스템은 K-DAS와 유사하게 송출본을 업로드하여 저장·관리하는 것을 비롯하여 편집, 검색, 전송 등의 기능을 포함함으로써 콘텐츠의 전체 생애주기를 통해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PD는 방송 송출 단계에서 이 시스템에 메타데이터를 입력하고, 송출 후 자료실 담당자 혹은 인턴이 이를 검수하거나 보완한다. 그러나 인턴 수급에 문제가 있을 때는 몇 달씩 메타데이터 입력 및 등록 업무가 지연된 적도 있다.



〈그림 5〉 P방송국 콘텐츠통합관리시스템

2012년 디지털방송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전 20년 동안 생산된 자료들은 모두 지하 서고에서 보존한다. 보존공간과 시설이 열악하여 담당자도 훼손된 테이프가 많을 것으로 추측하였고, 에어컨, 제습기 가동으로 인해서 유지비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하여 TF팀을 구성해서 아날로그 기록물들을 디지털화하자는 내부 논의가 있었으나 3만개가 넘는 테이프에 대한 변환비용 등이 만만치 않아서 결국 진행되지 못 했다고 한다. 2012년부터 디지털방송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그 이후에 생산된 디지털 기록물들은 자료실과 사내 서버망에 보관 및 관

리하고 있다.

3.4.5 열람 및 이용

내부 이용자들은 앞서 소개한 CMS를 통해 방송영상물의 이용 및 검색이 가능하다. 단 보안상의 이유로 자료실 내부에서만 이용 및 열람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용자는 본인 컴퓨터에서 자료실로 자료요청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대출신청하면, 담당자가 승인 후 인터넷을 통해 파일이 전달되며 신청자는 본인의 컴퓨터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출된 기록물의 종류와 이용량에 대한 추적 및 통계 작성이 가능하다. 외부이용자의 경우 P민방 홈페이지를 통해 방영프로그램과 라디오 등 송출프로그램을 다시보고 듣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외 오프라인 자료실 이용은 제한된다.

3.5 J민방

2차 민방 중 하나인 J민방은 지역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1997년 1월 주식회사로 법인을 설립하고 9월 시험방송을 통해 정식 개국하였다. 주된 방송권역은 전북지역을 비롯하여 인근 충남의 서천, 논산, 부여 등에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3.5.1 전담 인력

홍보심의실 소속 자료실에서 방송영상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1997년 개국과 함께 근무하기 시작한 자료실장이 최근에는 방송PD로도 겸직하면서 20년째 혼자서 자료실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인력충원의 사례는 없었다. 최근 방송환경이 디지털화되면서 자료실의 대출 및 이

관 업무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 담당자는 콘텐츠 제작 업무와 자료실장 업무를 7:3 비율 정도로 겸업하고 있다.

3.5.2 기록물 보유 현황

J민방 역시 타 방송국과 마찬가지로 각종 테이프 자료, 큐시트, 영상필름, 음반, 디지털자료 등 보유 기록물의 종류에 있어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1997년 방송국 개국 이래로 생산된 자료를 시작으로 2013년 자료실 디지털화 이전까지 생산된 아날로그 기록물은 자료실 내부에 보관하고 있었고, 그 외 2013년 이후 송출된 방송영상자료는 방송국 내부 서버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다. 그러나 J민방 역시 전체 방송 기록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어서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J민방은 본 연구의 조사 대상 방송국 중 가장 열악한 환경과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료실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3.5.3 공간 및 시설

약 30여평 정도의 기록물 보존 공간이 있으며 기록물의 대략적인 양을 고려할 때 공간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였다. 또한 밀폐문이 존재하지 않는 보존 공간의 입구에는 <그림 6>과 같이 에어캡 재질의 비닐이 공간 입구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항온항습시스템의 기능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의 습기를 막기에도 부적절한 환경이었다. 또한 대형에어컨 한 대로 자료실의 습도를 조절하고 있었다. 주기적인 기록물의 보존처리나 테이프를 영겨 붙지 않도록 하는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테이프를 재생하고 활용하지 않은 방송테이프

들의 훼손가능성이 농후했다. 2017년 3월에는 사옥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노조사무실의 기록물이 불에 타 전소되었으며, 화재 설비의 미비로 인해 매연과 유독가스가 자료실에 유입된 적도 있다. 이 사건을 통해 보더라도 소화설비가 미흡하여 기록물의 훼손은 물론이며 자칫 희생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방송국의 자료실 컴퓨터와 재생 장비 등은 오랜 기간 업그레이드되지 않은 과거의 저 사양 컴퓨터들과 낙후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자료실 자료검색시스템은 방송국 창립시기에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20년가량 계속 사용해 왔고 OS도 현재 단종된 것으로 향후 업그레이드 및 보안서비스마저 종료된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방송 송출된 테이프도 방송프로그램과 방송일자 등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지 않고 각종 프로그램 테이프가 무질서하게 꽂혀 있어서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정리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6> J민방 보존환경(좌) 기록물 보관 상태(우)

3.5.4 기록관리 과정

J-MBC와 유사하게 J민방의 PD들은 서버 공간을 배분받고, 영상기록물을 자율적으로 저장한다. 서버 용량이 부족해지거나 촬영원본까지 보관하려는 PD들의 경우 각자 외장하드나 개인 컴퓨터에 임의로 보관한다. 서버에는 용도별로 서버명을 지정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물은 ‘드론촬영’이라는 이름의 서버를 구축하고 여러 PD들이 드론으로 촬영한 파일들을 그 안에 합동으로 저장하기도 한다. 촬영원본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한옥마을에 대한 특집물 등 중요한 촬영원본들을 자료실에서 수집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자료실에서의 수집을 중단한 상태이며 PD의 재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PD들의 이관의 경우, 과거에는 PD가 방송 영상물을 물리적 테이프에 저장하고 FD에게 주면 FD가 주조종실(Master control room)⁷⁾에서 전달해서 방송을 송출하도록 하고, 그 테이프에 적절한 라벨링을 해서 자료실에 저장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디지털 방송 시대를 맞이하여 PD가 각자 편집용 컴퓨터에서 CP본을 제작하고 ‘방송대기’ 서버로 디지털파일을 복사·이동시킨다. 그러면 주조종실에서 방송날짜와 제목 등 원본파일과 메타데이터를 확인하고 편성표에 맞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한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방송완료’ 폴더에 넣어주면 자료실장이 그 서버에 접속해서 방송이 완료된 송출본을 다운로드하여 자료실 서버에서 관리한다.

폐기와 관련하여 2011년 현재의 사옥으로 이

전하던 당시 자료실장이 이용 빈도, 자료의 가치 등을 판단하여 오래된 테이프들을 폐기하고 중요한 기록물들은 일부 디지털화하였다. 이 때 주로 J민방의 자산보다는 외주제작자료를 폐기하였다. 방송영상물에 대한 폐기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촬영 주체가 J민방인 것과 외주프로덕션에서 제작한 것 사이의 저작권문제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기술이 발전하면서 UHD 4K화질 등 고화질의 파일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내부 서버가 감당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없는 방송영상기록물의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폐기해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과거에 생산된 아날로그 방송기록에 대한 디지털화 계획은 예산문제, 인력문제로 인해서 무기한 보류중이며 과거의 테이프가 온전한지 그 상태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디지털화 작업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3.5.5 열람 및 이용

내부 이용자는 간단한 이용신청일지를 작성하고 자료실장이 승인 후 요청된 파일을 방송완료된 파일을 저장하는 서버에서 다운받아 ‘대출’ 폴더를 만들고 이 폴더에 다운로드하여 이용자가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해준다. 외부 이용자들의 자료실 이용은 제한되어 있으나 방송국 홈페이지에서 TV 다시보기 서비스와 라디오 다시듣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V 다시보기 서비스는 대략 지난 1년 분량만을 제공하고 있고, 서버용량의 부족으로 인해 송출된 방송영상

7)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의 제작 송출을 지휘 관리하는 곳으로 보통 ‘주조’라고 부른다.

물을 동영상공유사이트인 Youtube에 업로드하여 방송국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라디오의 경우에는 라디오 방송콘텐츠를 바로 다운받는 것이 가능하고 2011년 자료까지 제공되고 있다.

3.6 기록관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이상의 각 방송국별 기록관리 현황을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KBS서울총국은 아카이브 사업부에 의해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다른 방송국들의 기록관리 수준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지역 방송국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1) 인력, (2) 기록물 보유 현황, (3) 공간/시설, (4) 기록관리,

(5) 열람/이용 영역에서 각각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방송국들에서는 기록관리 담당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PD나 아나운서가 겸임하고 있으며 그나마 한 겸임자가 오랫동안 기록관리 업무를 지속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기록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자관 기록물의 보유 현황, 그 중에서도 아날로그 자료에 대한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곳은 전무하였다. 이는 최근 방송프로그램의 생산 과정이 디지털화되면서 송출된 디지털파일에 대한 관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에 생산된 아날로그 자료에 대한 관리의 소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아날로그 테이프에

<표 5> 방송국별 기록관리 현황

	KBS서울총국	J-KBS	J-MBC	P민방	J민방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서비스국 아카이브사업부 • 3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심의팀 마케팅국 소속 자료실 • 자료실장: 아나운서 (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심의실 소속 자료실 • 자료실장: PD(겸임)
기록물 보유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보유 현황 홈페이지에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 현황 파악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 현황 파악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 현황 파악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 현황 파악 안 됨
공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실 약 100평 + 보존서고 3곳(사옥 내 보존서고 2, 수원드라마센터 1) • 보존설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실 약 40평 • 보존설비 우수 • 아날로그 기록은 소품실과 복도에 방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실 70평 • 보존설비 양호 • 컴퓨터장비 낙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실 80평 + 지하 서고 • 보존설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실 30평 • 보존설비 미흡 • 컴퓨터장비 낙후
기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미디어 아카이브 지침』 • 『비디오콘텐츠실무회의체』, 『콘텐츠평가위원회』를 통해 폐기 결정 • KOBIS, 부서별 서버, K-DAS 사용 • 2017년 과거 아날로그 테이프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 모두 완료 예정, 지방총국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도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BIS, K-DAS 시스템 사용 • 전국방송은 K-DAS에 저장, 지역권역 방송 송출본은 자체 지역국영상관리시스템에 PD별로 배당된 폴더에 한시적 저장 • 지역국영상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송출본은 자료실의 대형 외장하드로 이관하거나 테이프로 변환하여 자료실에서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리 규정 부재 • PD가 촬영원본, CP본, 송출본을 서버 내, 개인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보관 • 송출본은 영상검색시스템에 등록 • 디지털화 계획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리 규정 부재 • 촬영감독과 PD가 외장하드에 촬영원본과 CP본을 개별적으로 관리 • 송출본은 자체 개발한 CMS에 보관 • 디지털화 계획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리 규정 부재 • PD가 촬영원본, CP본을 서버 내, 개인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보관 • 사내 서버에 송출본 보관 • 디지털화 계획 없음
열람/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KOBIS, 부서별 서버, K-DAS 시스템을 디지털 파일로 이용 • 지역국을 위한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국영상관리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사용 • 서울총국에 대한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검색시스템에서 검색 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실 내의 CMS에서 검색 후 다운받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실장이 서버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대출' 폴더에 저장해주면 이용

대한 보존환경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날로그 테이프들이 상온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방송국들이 아날로그 테이프가 영겨붙지 않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상당량이 훼손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테이프들을 장기 보존하기 위한 디지털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방송국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록관리를 위한 성문화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기록물 폐기 등의 주요 업무가 담당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게다가 방송기록물의 가장 핵심이 되는 송출본이 PD의 재량에 따라 서버 내 저장공간, 개인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임의적으로 보관되는 방송국들도 있어서 일관성 있는 기록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열람과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이용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기록의 무결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방송기록물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부실하여 정확한 검색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3.7 담당자의 기록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담당자들의 기록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은 각 방송국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KBS의 경우 상기한 바와 같이 아카이브 구축에서 활용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향후에 콘텐츠 관련 사업 기획 및 이용자

서비스 업무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보았다. 면담자는 신입직원 선발 후 5년만인 2016년에 직원 1명이 보충되어 업무량에 비해 근무자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기록관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십 제도를 실시한 적도 있으나 인턴교육과 재검수를 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점 때문에 중단되었던 경험을 거론하면서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른 방송국 담당자들도 전수조사, 메타데이터 입력 등의 작업을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직할국인 J-KBS의 면담자는 서울 본사에서 지역국의 기록관리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서울총국 담당자는 지역국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기록관리 측면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담당자들은 아날로그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J-KBS에서는 서울총국에서 디지털화 작업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P민방과 J민방에서는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J민방 담당자는 중요한 촬영원본을 자료실에서 수집하여 차후에 요긴하게 사용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촬영원본까지 관리할 여력이 없어서 중단한 상태라고 밝히면서 장기적으로는 촬영원본에 대한 수집도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자체 기록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담당자들은 기록의 관리 절차가 그동안 내부 관행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향후 기록관리 지침이나 규정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J-MBC 면담자는 서울MBC에서 기록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본사의

기록관리 규정을 J-MBC에 적용함으로써 향후 해당 방송국의 기록관리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열람 및 이용 측면의 개선방안에 대해 J-KBS 담당자는 기록 열람을 위해 허락을 받는 절차를 번거로워하는 내부문화가 걸림돌임을 지적하면서 책임자의 허가를 얻은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이용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KBS서울총국 담당자는 기록물의 메타데이터가 누락되었을 때 무조건 아카이브 관리부의 책임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초기입력 단계가 중요하므로 메타데이터 입력에 대한 내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서울총국이 존재하는 J-KBS, J-MBC의 경우에는 기록관리 규정이나 인력의 지원을 본사로부터 받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다른 방송국들은 인력 확충,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 기록관리 규정 수립, 열람 및 이용 통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방송국 사정이 열악하여 구체적인 자구책은 강구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방송국차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방송기록물관리를 국가 차원의 통합 아카이브 구성을 통해 진행하는 방향의 대안 마련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방송기록물은 방송국 자체에서 관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방송기록관리는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방송 기록물은 1차적으로 회사귀속기록물이기 때문에, 사내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 국가가 나서서 모든 방송기록물을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방송기록물은 사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서버용량증설비용, 인력운영비용 등이 없어서 어렵다. 그걸 누가 지원을 해주겠나. 방송국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시·도·지자체가 주도하는 광역별 통합 아카이브나 지역방송국 간의 통합 아카이브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외부적으로 지역민방 통합 아카이브를 논의한 적은 있다고 들었지만 진척된 건 없다. 개인적으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방송사별 경제적 능력이 달라서 n/1로 투자도 이뤄지기 어렵다.”

“시나 도등 지자체에서 하려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선별된 몇 가지 방송영상물만 보존해야 하지 않겠나. 모두를 보존하고 관리하기에 시도지자체도 부담스럽고, 그렇게 할 필요성도 당장은 못 느낄 것 같다.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가질 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국가 주도의 의무납본제 방송 아카이브의 형태가 방송기록물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존을 위한 이상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본 면담에서 드러났듯이 방송국들이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국가 차원의 통합 아카이브 구축은 매우 요원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통합 아카이브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개별 방송국에서 자체적으로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개선방안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지역방송국 자료실은 방송 제작 중에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보다는 송출된 방송영상물들을 단순히 보관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방송기록물과 메타데이터의 디지털화를 통한 장기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서울총국이 있는 J-KBS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개발한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향후 디지털화 작업도 본사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으나 서울MBC의 계열사인 J-MBC를 비롯하여 다른 2곳의 민방은 외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기록관리를 해나가야 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장 관찰 및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방송국 기록관리의 시급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최소한의 기록관리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가 선결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비교적 방송국 규모가 큰 KBS서울총국과 P민방과는 달리 J-KBS와 J-MBC에서는 담당자가 부재하고 J민방도 1인이 자료실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매일 생산되는 송출분을 보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상적으로는 각 방송국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기록관리에 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방송국들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고 예산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본사의 매출과 연동되어 있는 지역방송사의 최근 경영상황이 악화되어(한진만, 변상규, 2016) 방송국의 운영과 존립에 있어 큰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지역방송

국들이 자발적으로 기록관리를 위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일은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하고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오광호(2007)가 제안하였듯이 방송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는 방송사에 대해 보존비용을 지원하거나, 국민들이 방송기록물 관리 기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발전 기금을 기부할 경우 세제 및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 등 예산지원책과 국가가 인력지원사업을 통해 방송국이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방송국 기록물의 전수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KBS서울총국을 제외한 다른 방송국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들에 대한 정확한 수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보유 기록 목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 보유 기록물에 대한 정확한 수량 파악은 향후 확충이 필요한 인력을 계산하고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셋째, 성문화된 기록관리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KBS서울총국을 제외한 다른 방송국들은 기록관리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적인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문화된 기록관리 규정이나 지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방송기록물 수집의 범위, 등록, 분류, 정리, 폐기 기준 및 절차, 보존 설비, 디지털화 방법 등 기록관리 전반에 걸친 업무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KBS와 MBC 서울본사는 이

미 기록관리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역방송국들과 공유함으로써 방송국 간에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기록관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본사가 없는 지역방송국들도 자료실장이나 PD 개인이 임의적으로 기록물 처리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방송국들의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넷째, 빠른 시일 내에 아날로그 기록물에 대한 디지털변환작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방송국에서 아날로그 자료에 대한 보존 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따라서 아날로그 기록물에 대한 최적의 보존환경조건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보존처리를 수행하여 더 이상의 훼손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용 측면에 있어서 아날로그 기록물은 검색시스템을 통해 검색은 되지만 자료실을 방문하여 대출해야 하고 대출된 자료를 다시 디지털로 변환한 후 사용해야하기에 업무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보존비용과 접근성을 고려할 때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관리 및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다섯째, 방송국의 기록물 종류에 따라 보존방법을 구별하고 정리해야 한다. J-MBC와 J민방은 송출본이 PD의 재량에 따라 서버 내 저장공간, 개인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분산되어 있어서 관리와 이용이 모두 어려운 상태이므로 하나의 서버나 외장하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다른 방송국들은 송출된 디지털 영상물들은 정해진 서버에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으나 촬영원본은 카메라감독이나 PD가 개인 컴퓨터나 배당된 서버 내 저장공간에서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이는 보존용 서버

용량에 한계가 있어서 자료실에서 용량이 큰 촬영원본까지 보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며 결국 촬영감독이나 PD는 제한된 저장공간에서 촬영원본을 덮어쓰기 하면서 임의로 삭제하고 있다. 그러나 촬영원본도 재활용을 위한 중요한 기록물이므로 KBS서울총국과 같이 이를 선별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특히 뉴스의 촬영원본은 사회적·역사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비해 용량이 작기 때문에 수집의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방송국별로 뉴스를 비롯한 중요 촬영원본에 대한 구체적인 수집 기준을 마련하여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방송기록물은 송출된 방송영상물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과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관련 기록물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합적으로 수집, 관리해야 한다.

여섯째, 열람 및 이용에 대한 통제 질서를 확립하고 강화해야 한다. 대부분의 방송국에서 방송영상물에 대한 열람과 이용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버 내에 PD들이 보관하고 있는 파일들을 아무런 제약 없이 다운로드하고 이용하는 경우, 실수로 훼손, 삭제하거나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 등 파일의 무결성을 쉽게 해칠 수 있다. 오프라인 자료실에서도 담당자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후 보고도 하지 않아서 이용 상황을 추적할 수 없는 방송국도 있었다. 따라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이용에 대한 보다 강력한 통제를 실시함으로써 기록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한다. 온라인의 열람의 경우,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용자의 접근권한을 설정하고 이용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자료실 담당자나

책임PD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일곱째, 방송 기록물 생산의 주체 업무자들에게 메타데이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여러 방송국 담당자들은 기록물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정확성이 떨어져서 검색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기록물의 원활한 관리와 이용을 위해서는 메타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모든 방송국에서 메타데이터의 초기 입력은 PD나 FD가 담당하고 있다. 자료실 담당자가 입력된 메타데이터를 검수하여 수정·보완하는 곳도 있으나 초기에 입력된 메타데이터의 질이 매우 중요하므로 PD나 FD에 대한 메타데이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하고 풍부한 메타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방송국들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KBS서울총국, KBS 지역방송국 1곳, MBC 지역방송국 1곳, 지역민방 2곳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KBS서울총국은 국내 대표 공영 방송국답게 기록관리에 있어서도 매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무엇보다 '아카이브사업부'라는 기록관리 전담 부서에서 최근의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기록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기록을 통해 새로운 방송서비스영역을 개척하고자 노력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였

다. 그 외의 방송국들은 모두 전담 부서 및 전문 인력이 부재하고 자체 기록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직할국인 J-KBS는 서울총국과 KOBIS, K-DAS 시스템을 공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나 아날로그 자료들이 복도나 소품실에 방치되어 제대로 보존되고 있지 않았다. MBC문화방송의 계열사인 J-MBC는 사장선임 등 주된 운영방식에 통제를 받으면서도 본사의 기록관리 시스템이나 규정을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료실 담당자조차 부재하여 자료실의 정리 및 보존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차 민방 중 가장 규모가 큰 P민방의 경우에는 자료실 인원이 3명으로 다른 지역방송국에 비해 많은 편이고, 자체적으로 콘텐츠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파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아날로그 기록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2차 민방 중 하나인 J민방은 기록관리를 위한 보존설비와 컴퓨터 장비가 낙후되고 정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과 보존이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지역방송국들의 열악한 기록관리 현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방송국별로 기록관리 규정 마련, 전수조사를 통한 보유 기록물 수량 파악, 촬영원본의 선별적 수집,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 열람 및 이용에 대한 보다 강력한 통제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방송의 공익적 역할에서 지역성(Localism)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 지역방송은 지역의 정보제공, 주민의 결속 강화, 지역문화 계승·발전, 지역정치 활성화, 지역 여론 조성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강대인, 한진만, 김응숙, 1993). 상

업방송 중심으로 발전해 온 미국에서도 방송의 공익성을 표현의 자유, 지역주의(Localism), 다양성(Diversity), 경쟁(Competition)으로 정의할 정도로 방송의 지역성은 세계적으로 증시되고 있다(주성희, 김대규, 김성규, 2012).

그러나 국내 지역방송국들은 중앙방송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록관리 환경에 처해 있으며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중요한 지역방송 기록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온 지역방송국의 기록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소수의 방송국 기록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면담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에는 보다 넓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기록관리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대인, 한진만, 김응숙 (1993). 민간 지역방송 신설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개발원.
- 강영숙 (2000). 디지털 방송 시대의 방송 영상 아카이브 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2017년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Retrieved from <http://msip.go.kr/SYNAP/skin/doc.html?fn=902c6e4e1e7763e71fdcb3edbe945b6e&rs=/SYNAP/sn3hcv/result/201712/>
- 김미경 (2009). 방송·영상 기록물 아카이빙 방안에 대한 연구: 선진 해외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68-69.
- 김선희 (2008). 공공 방송 아카이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김재영, 이승선 (2016). 지역방송의 내부 식민지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사장선임 등 지배구조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언론정보학보, 78, 35-78.
- 박수현 (2004). 방송영상 아카이브의 역할과 효율적 운영 방안.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대학원.
- 오광호 (2007). 방송기록물 운영관리 체제의 개선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정보과학과.
- 우계성 (2010).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영상 아카이브 구축과 이용자 만족에 관한 연구: SBS 아카이브센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 유은혜 (2006). 디지털 방송영상아카이브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장유미 (2001). 디지털 시대 영상콘텐츠의 활용방안 - 영상아카이브 운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신문방송학과.
- 주성희, 김대규, 김성규 (2012). 스마트 미디어 시대 방송의 공익성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2-15.
- 태양식 (2009).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영상 아카이브 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 한진만, 변상규 (2016). KBS 지역국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방송문화연구, 28, 153-187.
- 황새암 (2008). 방송 아카이브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Han, Jin Mann, & Byun, Sang Kyu (2016). A study for the competitiveness strengthening effects of the mergers between KBS's local centers. *Journal of Studies of Broadcasting Culture*, 28, 153-187.
- Hwang, Sae Am (2008). A study on the operating method of broadcast archiv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Records Management.
- Jang, You Mee (2001). An industrialization study of digital contents - focused on the practical use of archiv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Policy Scienc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Joo, Sung Hee, Kim, Dae Kyu, & Kim, Sung Kyu (2012). A study on the public interest of broadcasting in smart media era.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12-15.
- Kang, Dae In, Han, Jin Mann, & Kim, Eung Sook (1993). A study on the method of establishment private broadcasting stations. Korea Broadcasting Development Institute.
- Kang, Young Suk (2000). A study on the method of archiving broadcasting image in digital broadcasting era.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Mass Communication, Sogang University.
- Kim, Jae Young, & Lee, Seung Seon (2016). How does the internal colonialism of local broadcasting work? - Focusing on governance including the appointment of CEO and its improve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78, 35-78.

- Kim, Mi Kyung (2009). A study on the archive method of broadcasting.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68-69.
- Kim, Sun Hee (2008).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establishment and the operation of the public broadcasting archiv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annam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ves Management.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7). 2017 A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broadcasting industry. Retrieved from <http://msip.go.kr/SYNAP/skin/doc.html?fn=902c6e4e1e7763e71fdcb3edbe945b6e&rs=/SYNAP/sn3hcv/result/201712/>
- Oh, Kwang Ho (2007).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of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broadcasting record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Park, Su Hyeun (2004). A study of the function and the efficient management of broadcasting archiv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Tae, Yang Shik (2009).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digitalized media contents archiv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Hanyang University.
- Woo, Kye Seong (2010).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a digital broadcasting image data archive: Focused on the SBS Archive Center.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Hanyang University.
- Yoo, Eun Hye (2006).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a digital broadcasting archiv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